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 전문성 강화 힘써”

취임 1주년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긴급돌봄서비스 지역 확대 등 서비스 품질 높여 내년 삭감된 국비 증액 위해 최선의 노력 할 것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품질도 높였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민이 17만명을 넘었고,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대상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왼쪽)이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3선 목포시의원, 2선 전남도 의원을 거친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사회서비스원에 반영하기 위해 직원,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숙의를 거쳐 보다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 연구,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염전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남지역 지자체들에 필요한 맞춤형 성과를 제공해 주민체감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긴급돌봄서비스 지역을 도내 13개 지역에서

2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는 연초 2만8225명에서 3만1146명으로 대폭 늘렸다.

“수요자인 도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만이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시설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실시했어요. 여기에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내년 사업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 국비보조금 8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 보조금 12억원 역시 본예산에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의 사회서비스원장들과 적극 협력해 국회에서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면



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건축재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비와 도비는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재원입니다. 자칫 사회서비스원 기본사업인 긴급돌봄, 찾아가는 행복버스, 대체인력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길지 걱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이를 극복해 보려고 준비중이에요.”

지난 2021년 6월 개원한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내 삶을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75여 명의 직원이 긴급돌봄 등 직접 서비스를 비롯해 11개의 위탁시설·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거점 지원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기여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무심는 건축인 류담포럼, 유용상 미래아동병원장 초청 강연

나무심는 건축인이 주최하는 류담포럼이 21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류담(流담) 포럼은 축적된 삶의 자산을 기반으로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지역 발전의 담론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건축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초청, 이야기를 듣는다.

이번 포럼에는 유용상(사진) 광산구수원미래아동병원장을 초청했다. ‘의사와 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를 앞두고 유 원장은 “체 계바라, 루신 등 의사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인물이 여럿 있다”며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에 어뀀



한 보답을 하고 있을지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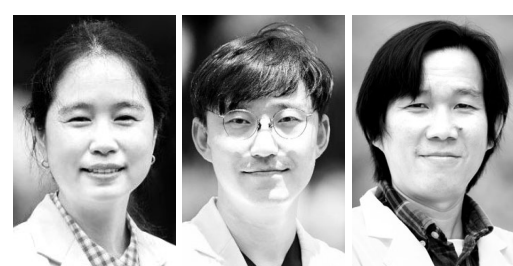
대한중소병원협회 감사 등을 맡고 있는 유 원장은 (사)인문학학연연구소 동고 이사장, 광주행복발전소 고문, 광주시 서구의회 자문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있다. 한편 나무심는 건축인은 도시 속의 푸른 공간을 꿈꾸는 지역의 건축인들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마음을 담아 발족한 단체다. /김민석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의료진, 학술대회서 미래의학자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의료진이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

김자혜·조상건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와 후이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연구교수는 제62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22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대회에서 각각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

김자혜 교수는 ‘파킨슨병에서 자화물 맵가중미와 F-18 FP-CIT PET의 진단 성능 및 정량적 분석 비교’라는 주제의 연구로, 조상건 교수는 ‘AI를 이용해 갑상선 CT에서 측정된 관상동맥 칼슘과 심근 혈류의 연관성’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왼쪽부터 김자혜, 조상건, 후이 교수

안았다. 후이 연구교수는 ‘공학적 다중약물모형 살모넬라를 사용하여 종양면역 미세환경 재프로그래밍’으로 상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화순전남대병원 손오봉 팀장, 전남도의회의장상 수상

손오봉(사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사회사업팀장이 대한적십자사 창립 118주년을 맞아 전남도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손 팀장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 혈액 사업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임직원과 실습학생, 의대생, 내원객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

시하고 있다. 손오봉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헌혈은 생명 기부하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실천운동 헌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MCS 광산지점,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



한전MCS(주) 광산지점(지점장 박기연) 나누리봉사단은 15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한전MCS(주) 광산지점 제공>

GIST 졸업생 김동현 박사

과기부장관 표창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출신 김동현 뉴로핏(대표 빈준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2023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뇌질환 영상 AI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의 김동현 CTO는 뇌진경 퇴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와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자동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50 인간: 신세계로부터(재)	00 혼례대첩(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지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55 내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지 동물교실3 40 모두의 챌린지(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 지도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영화가 좋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혼례대첩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55 고려 거란 전쟁(재)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9층 시사극(재)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12	15 KBS결작 다큐멘터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스튜디오 K	30 스포츠 매거진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대 호기심딱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브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00 뽕뽕뽕 뽕뽕 뽕뽕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객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07: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최강우주소방대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타이완이 좋다
08:20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타이베이라서 좋다
08:35 뽕뽕뽕 뽕뽕 뽕뽕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8:50 다이노스터	17:00 페퍼 피그	<가을 채우다 1부 임자의 공간>
09:2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21:50 EBS 다큐프라임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뽕뽕뽕뽕의 빅포털리 쇼츠	22:50 인간과 바다
10:30 한국기행(재)	17:25 뽕뽕뽕뽕 뽕뽕(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음 10월 8일 壬午) ☎ 010-9790-8237

<p>36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마라. 48년생 태어난 다 놓치고 파라마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60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72년생 얽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하느니라. 84년생 빨리 철화할수록 이익이다. 96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능히 제압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0, 78</p>	<p>42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54년생 이번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 잊고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78년생 불분명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쳐라. 90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중 집착이 갈 것이다. 02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14, 94</p>
<p>37년생 만사를 자치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49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왕에 이른다. 61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73년생 반추해 본다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97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행운의 숫자 : 05, 79</p>	<p>43년생 위원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마라. 55년생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67년생 시적이 좋다. 79년생 보정된 것은 아니니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91년생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낫다. 91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만한 애로 사항이 보인다. 03년생 눈은 흥년인데 입을 흥년이다. 행운의 숫자 : 31, 91</p>
<p>38년생 방심하고 다닌다면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다. 50년생 머리로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라. 62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러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미리 벌어진 틈을 잘 매워 놓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86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98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66, 84</p>	<p>44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56년생 별문제 없으니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68년생 쌍방에게 공히 생산적이라면 실익이 있다. 80년생 활동력을 강화해야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 92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04년생 전혀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82</p>
<p>39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51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63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5년생 가짜 판국에서 진짜가 파문하는 예측함이 보인다. 87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99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70</p>	<p>45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57년생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국한하는 것이 순탄하다. 81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93년생 일부나마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05년생 손리에 벗어난다면 불행은 자초하라. 행운의 숫자 : 24, 59</p>
<p>40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자. 52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64년생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행운을 유지하게 되리라. 76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준비를 해라. 88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00년생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8, 54</p>	<p>46년생 아예 아니란만 백만 못하느니라. 46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적을 범하게 된다. 58년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한다. 70년생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력이 지대하다. 82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94년생 흥과 북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03, 96</p>
<p>41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형상이니 대응해볼 만하다. 53년생 구도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작용하는 계제이니라. 65년생 모두가 하나하나 파파로이므로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77년생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 89년생 중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01년생 팔이 들어 굽지 내 굽지는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7, 50</p>	<p>35년생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47년생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59년생 오행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71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83년생 기본적인 틈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95년생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55</p>